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은 최고의 목표이며 꿈이라고 할수 있다.

바로 금메달을 쟁취하기 위해 남들이 다 자는 밤에도 훈련하며 휴식일도 따로 없이 땀과 열정을 바쳐가는 체육인들이다.

그러나 금메달로 향한 길은 결코 순탄치 않다. 또 그 길에 나선 이들은 많아도 그 꿈을 실현하는 사람은 매우 적다. 바로 그래서 체육인들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쟁취하는 그 순간은 인생의 최절정이라고 할수 있는것이다. 국제경기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때의 심정을 어찌 한두마디의 글로써 다 표현할수 있으랴.

하다면 체육인으로서 최고의 순간인 우승의 단상에 오를 때 조선의 선수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가?

지난 20일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가 진행되고있는 인천의 하늘가에 공화국의 국가인 《애국가》의 선율이 장중히 울려 퍼졌다. 남자력기 56kg급경기에 출전한 엄윤철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따낸 순간이었다.

평양의 하늘가를 우러러 승리의 보고를 올린 엄윤철선수는 우승의 소감과 비결을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제일먼저 안겨왔다. 그이의 믿음이 있었기에 오늘까지 경기마다에서 현전현할수 있었다.》

그만이 아니다. 다음날 62kg급 력기경기에 출전하여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1등의 영예를 쟁취한 김은국선수도 기자들의 질문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기쁨을 드릴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감격의 금할수 없다고 말해 사람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했다.

이것이 우승의 단상에서 공화국선수들이 터친 심장의 고백이다.

그들이 말한것처럼 금메달을 쟁취한 순간 조선의 체육인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것은 환하게 웃으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다.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공화국기를 휘날리는것은 천만군민을 투쟁과 위훈에로 불러일으키는데서 백마디, 천마디의 말로도 대신할수 없는 커다란 호소력과 감화력을 가진다고 하시며 체육인들이 더 많은 국제경기들에서 조국의 영예를 빛내이도록 온갖 사랑과 믿음을 다 안겨주시며 세심히 아끼고 보살펴주시기 때문이다.

엄윤철, 김은국을 비롯한 공화국선수들이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에서 공화국기를 띄우고 돌아왔을 때 로력영웅칭호를 수여하도록 하여주시고 친히 우승자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국가종합팀 남자축구경열경기를 지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원수님

을 몸가까이 부르시어 고무도 해주시며 사랑의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훌륭한 경기성과를 이룩한 선수, 감독들에게 보통

강기슭에 번듯하게 일떠선 살림집까지 안겨주시는 크나큰 사랑과 은정도 돌려주시였다. 이번엔 인천아시아경기대회를 앞두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일이 이처럼 바쁘신속에서도 친

히 남녀축구선수들의 겸열경기를 지도해주시어 선수들에게 크나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그들의 친어비같은 사랑과 믿음은 그대로 체육선수들이 국제경기마다에서 높은 경기성적을

상에 오르는 순간이면 제일먼저 자기의 평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것이리라. 1999년 8월 29일 에스빠냐의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록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

올릴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으로 되고있다.

엄윤철선수만 보아도 지난 2011년 세계청년력기선수권대회와 제30차 올림픽경기대회, 2013년 아시아력기선수권대회와 2013년 청년, 성인급 아시아컵 및 구락부력기선수권대회, 2013년 세계력기선수권대회에서 련이어 우승을 쟁취하였으며 올림픽 새 기록과 세계신기록을 수립함으로써 세상이 다 아는 력기강자로, 조국의 장한 아들로 인민의 사랑을 받고있다.

이렇듯 평도자의 각별한 보살핌속에 인민이 알고 세상이 다 아는 영웅으로, 선수권보유자로 자라나는 조선의 체육인들이기에 영광의 단

상에 오르는 순간이면 제일먼저 자기의 평도자를 마음속으로 그리며 승리의 보고를 드리는것이리라. 1999년 8월 29일 에스빠냐의 세빌라에서 진행된 제7차 세계록상선수권대회 여자마라손경기에

서 2시간 26분 59초동안 달리고 달려 단연 1등의 영예를 지닌 정성욱선수가 어떻게 영예의 1위를 쟁취할수 있었는가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나는 우리 인민의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동지를 마음속에 그리면서 달렸다. 이것이 오늘 나를 크게 고무하였으며 힘의 원천으로 되였다.》라고 말해 세인의 화제가 되었던것은 알려진 사실이다. 이것은 이미 10여년전의 일이다.

세월은 흐르고 강산은 변했지만 오늘날 조선의 체육인들은 훈련장에 나설 때나 경기장에 나설 때나 그리고 우승의 단상에 오를 때나 언제나 자기의 평도자만을 그리며 달리고 그 힘으로 육체적능력의 한계점도 극복하며 승리의 금메달도 쟁취하는것이다. 그 힘이 있는 한 조선의 체육인들은 언제나 국제경기마다에서 공화국의 영예를 만방에 떨칠것이며 《애국가》의 장중한 선율을 온 세상에 금지높이 울려 퍼지게 할것이다.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도 승리의 첫 개가를 올린 엄윤철선수의 뒤를 이어 김은국, 리정화, 홍은정, 김은주, 김은학선수들이 련이어 우승의 금메달을 쟁취하여 인천의 하늘가에 《애국가》를 높이 울리고있다. 우승의 보고를 받으시면 것처럼 기뻐하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체육인의 본분을 다 하려 정열을 바치고 땀을 쏟은 그들이였다.

지금 공화국의 남녀선수들은 남은 경기들에서 더 많은 금메달을 따내는것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열정과 힘을 다해 뛰고 또 뛰고있다.

래일에는 또 어느 선수가 우승의 금메달을 들어올려 조국인민들과 겨레를 기쁘게 하겠는지?

본사기자 김 강 철

인상

خم모의 마음 선물들마다에 어려

보물고였다.

나는 선물관의 매층에서 중점을 이루는 몇개의 호실들을 돌아보았다. 각계층 인민들과 나 어린 학생들로부터 지경님어 세계의 이름있는 인사들과 국가수반들이 보내온 선물들 하나하나에는 지극한 정성이 숨배여있었다.

철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철조각들을 알알이 갈고갈아 그 수백, 수천조각으로 자기들의 일터를 찾아온 수령님의 영상을 형상한 철쪽무이 《천어비이사랑》이라는 그림을 만들어 올리였과 흙모심기 한점한점의 선물들에 어려있어 선물관은 그대로 인간매혹과 지성의

은 매혹은 그 전설을 현실로 만든것이었다.

바다를 지키는 초도의 인민군인들은 수십리 날바다를 헤치고 자기들의 초소를 시찰한인 장군님의 모습을 형상한 인조보석화를 정성담아 만들어 삼가 올리였다. 여기에는 눈물없는이들울수 없는 감동깊은 이야기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초도를 시찰하신 날은 너무도 파도가 세하고 바람이 심하게 인 날이었다. 초도의 인민군장병들은 험한 날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파도를 헤치시며 자기들을 찾아온 최고사령관의 모습을 잊을수 없어 진주조가비와 산

호초들로 작품을 형상하였다고 했다.

평도와와 인민들사이에 맺어진 혈연적인 뉴대는 선물마다에 그대로 깃들어있었다.

갈마휴양소를 찾으신 어느날 장군님께서 휴양소의 특정한 침대를 만져보시며 자신께서는 이제는 허리가 아파 특정한 침대에 누울수 없다고 하신적이 있었다고 한다. 그날의 사연을 알게 된 인민들은 3년간이나 험한 산밭을 오르내리며 채취한 적목나무와 향나무 등 약재나무들로 알박이침대를 만들어 그이께 삼가 올리였다. 하지만 장군님께서 인민들이 올린 그 알박이침대

에서 언제한번 허리를 펴보지 못하고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현신과 로고의 길을 이으셨다.

참으로 한쪽의 그림, 한점의 선물에서도 민족이 만들어 모신 령수가 얼마나 위대한분들이신가를 시각적으로뿐이 아니라 온몸으로 느낄수 있었으며 그런 령수를 모신 민족의 일원이 된 자부심을 뿌듯이 느낄수 있었다.

선물관을 돌아본 한 동포는 《인간이 인간에게 매혹되지 않고는 도무지 만들어 낼수 없는 선물이다.》라고 자기의 감동된 마음을 토로하였다고 한다.

철세위에 대한 우리 겨레와 세인의 열렬한 흙모와 존경심이 흘러넘치는 국가선물관은 그대로 인간매혹, 위인 흙모의 대전당이며 대대손손 길이 전해갈 만년재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재로씨아동도 최 재 금

승고한 인민사랑의 한쪽을 펼치며

2 500여리의 눈보라길

주제 97(2008)년 1월 말 대소한의 추위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자강도를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현지지도소식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후덥게 하였다.

그것은 바로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눈보라길을 헤치시고 자강도를 다녀가시였기때문이었다. 그때 현지도도를 마치시고 평양에 도착하신 장군님의 실종에는 조국의 최북단에 자리잡고있는 한 평산에 들리지 못하고 오신것이 무겁게 자리잡고있었다.

조국땅 한굴에 살아도 언제나 말없이 많은 일을 하는 광부들을 이번 길에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오신것

이 마음에 걸리신 그이께서는 평양으로 올라가시였다가 눈보라치는 길을 되돌아 오시였다.

너무도 곱만 같은 영광에 휩싸여 놀라움과 경탄속에 오열을 터치는 광부들을 한굴에 안으시고 기념사진도 찍어주시며 그이께서는 나는 일을 많이 한 광산일꾼들과 동계급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며칠전에 자강도에 왔다가 이 평산을 돌아보지 못하고 간것이 마음에 걸려 다시 왔다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그 누가 말하기를 수천척 제나 말없이 많은 일을 하는 광부들을 이번 길에 직접 만나보지 못하고 오신것

고 하였다.

허나 수천만 인민들을 친자식처럼 여기시며 자식에게는 차별없는 사랑을 부어주는 어머니와도 같이 그 어디에 있던 자애로운 사랑을 안겨주시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여 이 나라의 광부들은 이런 하해같은 사랑을 받아안은것이였다.

정녕 한 나라의 평도자가 만나보지 못한 광부들을 찾아 왕복 2 500여리 눈보라길을 되돌아 찾아오신 이런 전설같은 이야기는 오직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안으신 어비이신 모신 이 나라에서만 있을수 있는 일이다.

본사기자

공화국의 근 70성상은 리상사회에서 살아보려는 민족의 념원을 현실로 펼치기 위해 어비이수령님께서 바쳐오신 한평생의 로고와 그 길에서 남기신 거대한 업적의 력사이다.

지난 력사의 갈피에는 리상사회건설에 대한 인류의 꿈을 퍼뜨리며 자기의 한생을 다 바친 유명무명의 제사들과 위인들의 활동기록이 기록되어있다. 그러나 그 꿈과 리상을 자기의 한생애 현실로 실현하여 보여준 위인이나 명인은 없었다.

주체의 나라, 인민의 나라로 빛을 뿌리고있는 이 땅에서는 수령님께서 고귀한 유산으로 물려주신 사회주의가 수수천년 부강번영을 갈망해온 민족의 리상과 념원을 현실로 펼쳐놓고있다.

해방직후 새 조선건설로 들끓는 북녘땅을 찾아 몽양 려운형이 평양에 왔었다.

어느날 수령님을 만나뵈고 독립과 건국의 열쇠도 인민들속에서 찾고 정치의 열쇠도 인민들속에서 찾아 나라의 정사를 떠나가야 한다는 그이의 장군에 감복한 려운형은 그이께 장군님, 저는 60평생 조선민족의 진로를 찾아 해마다가 뒤늦게나마 이제야 찾아왔습니다. 제가 북에 와보니 장군님이 베푸시는 정치는 꿈에서 그리던 리상정치입니다, 우리 조선은 장군님을 모시여 정발 태양의 광명을 받아안았습니다라고 말씀드리었다.

우리 민족이 념원한 리상사회는 물론이고 동서방의 각이한 민족들이 그려본 리상사회는 인간존중의

사회, 인간에 의한 착취와 지배가 없고 진정한 자유가 보장되는 평등사회에 대한 갈망이었다.

수령님의 탁설하고 독창적인 국가건설과 국가활동의 사상과 로선, 평도가 세상사람들이 공감하고 동경하는 조선식사회주의, 진정한 인간존중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를 건설하였다.

1992년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어비이수령님께서 내게 회고록을 어민원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이원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이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차 들지 못하고 살던 불행한 녀인들의 처지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의 구절들을 생각하고 봉건적인 남존녀비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을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담보하고 동경하는 조선식사회주의, 진정한 인간존중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를 건설하였

1992년 12월 어느날이었다. 그날 어비이수령님께서 내게 회고록을 어민원천이라고 썼는데 그것은 인민을 하늘과 같이 여긴다는 뜻이다. 이원위천은 나의 지론이고 철학이다, 나는 혁명의 길에 나선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평생 인민대중을 하늘과 같이 여기고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였으며 인민대중의 힘에 의거하여 혁명을 하여왔다고 말씀하시였다. 이원위천에 수령님의 한생의 지론과 인간존중의 철학사상이 집약되어있으며 그것은 공화국이 인간 존엄과 인격을 최고로 존중시하는 사회주의사회로 될수 있게 한 사상정신적원천이었다.

수령님께서 공화국을 자주적 인간의 존엄을 담보하는 리상사회로 건설하기 위해 인민대중의 이격과 가치를 최대로 높여주는것을 제도적으로 법화하도록 하시였다. 해방후 폐허로 된 강선제강소(지금의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으면서 나 어린 소년로동자의 모습에서 로동법령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구상하고 발표하신 수령님이시였으며 지난날 인간이하의 천대와 속박속에 머리조

차 들지 못하고 살던 불행한 녀인들의 처지에서 남녀평등권법령의 구절들을 생각하고 봉건적인 남존녀비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으신 수령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공화국을 자주적인간의 존엄을 담보하고 동경하는 조선식사회주의, 진정한 인간존중의 나라, 인민대중중심의 나라를 건설하였

지금으로부터 스무해전 미국 《워싱턴 타임스》기자들을 만나신 수령님께서서는 그들이 제기한 공화국의 인권문제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우리 나라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나라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사람들의 인격과 자주적권리가 실질적으로 존중되고 보호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차별없이 정치적자유와 권리는 물론 노동과 휴식의 권리, 교육과 의료보장을 받을 권리를 비롯하여 사회적인간의 모든 권리를 전면적으로 보장해주고있다, 인민이 좋아하면 그것이 공정한 인권기준으로 된다고 하시였다.

인간존중의 조선식사회주의는 어비이수령님께서 구상하신 리상사회로써는 인민대중의 로고와 심혈의 고귀한 결실이다.

공화국의 력사는 리상사회로 향하여 인류의 기나긴 력사적로정에 비추어볼 때 한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평도밑에 공화국은 이 땅위에 인간존중의 리상사회를 현실로 펼치고 오늘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평도따라 사회주의문명국의 전성기를 펼쳐가고있다.

본사기자 리 설

수필 철쭉이 핀다

무릇 철쭉이라고 하면 진달래과의 일지는 넓은잎떨기나무이고 해발높이 2 000m아래의 산지에 뿌리를 둔 꽃나무이다.

봄계절에 피었다지는 꽃이지만 철쭉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선군의 상징으로 일컫는 철령과 함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헌신의 이야기를 전하는 꽃으로 언제나 피어있다.

새삼스레 철쭉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는것은 평양양말공장에 대한 취재길에서 받은 충동때문이다.

정절하고 아담한 구배를 지니 생산공정을 따라 현장을 둘러보는 나에게는 기차라는 직업본연보다도 녀성으로서의 호기심에서 녀자양말직장이 더 인상적이였다.

양말생산의 첫 공정인 제직작업장에 딱 들어찬 기계들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제품통에 들어가는 양말들, 프로그램에 따라 임의의 양말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기계설비들, 능률높은 봉조기들앞에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완성

가공하고있는 생산자들, 열처리기대들에서 흘러나오는 긴양말과 짧은 양말들 ...

내가 제품조장공정을 지켜보고있는참인데 문득 직장장이 공장을 찾으신 그날 장군님께서 제품조장의 질을 높이는것과 함께 소비자들의 심리에 맞는 상품을 도안해야 한다고 이르시였다고, 그래서 《철쭉》이라는 상표가 나왔다고 말하는것이였다.

《철쭉》, 많이 읽은 두글자를 되뇌이는 나의 심층에는 뜨거운것이 그득 차올랐다.

나의 눈앞에 장군님 녀고님어신 힘준한 철령의 경길들이 펼쳐졌다. 꽃은 날, 마른날 가림없이 걸으신 전선길이었다. 어깨로 지치는 아전차들을 미시며 쉬임없이 녀고님어신 철령이였다.

언제인가 한 시인이 철령을 녀으며 받았던 느낌에 대하여하던 이야기를 잊을수가 없다.

... 령길이 너무 가파로워 운전수는 물론이고 앉아있는 사람들도모두가 땀으로 미역을 갈라보는 나에게는 기차라는 직업본연보다도 녀성으로서의 호기심에서 녀자양말직장이 더 인상적이였다.

양말생산의 첫 공정인 제직작업장에 딱 들어찬 기계들에서 생산되어 일정한 시간간격으로 제품통에 들어가는 양말들, 프로그램에 따라 임의의 양말들을 마음먹은대로 만들어내는 자동화된 기계설비들, 능률높은 봉조기들앞에서 갖가지 모양과 색깔의 양말들을 완성

가공하고있는 생산자들, 열처리기대들에서 흘러나오는 긴양말과 짧은 양말들 ...

장군님께서 바라보신 철쭉꽃송이들에 과연 무엇이 비껴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선군으로 지어진 나라의 존엄이였고 행복복된 인민의 모습이었다. 인민을 위해 온갖 고생을 락으로 여기시며 장군님 녀고님어신 아흔아홉살이 철령의 힘준한 전선길이 있어 오늘 이 땅에는 인민생활향상의 경이적인 전변이 이루어졌고 인민의 행복이 넘쳐나있는 것이리라.

평양양말공장도 그렇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찾으신 장군님의 유복자공장이라고하신 천치울활유공장, 자체의 기술과 원료를 가지고 세계적 경쟁력을 가진 질 좋은 견재들을 광광 생산해내는 천리마일공장도 그러하다.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해 생산의 동음을 세계까지 울려가는데 이 땅의 생산기치들 어디에나 그이의 애국헌신과 인민사랑의 로고와 심혈이 깃들어있는것이였다.

나에게는 한평생 인민위협 사랑과 헌신의 장정을 이어가신 장군님의 로고가 뜨겁게 이려와 코지 않은 양말의 《철쭉》상표가 천만군의 무계를 가지고 가슴에 와닿았다.

《철쭉》, 그것은 장군님께서 이 땅에 뿌려놓으신 만민의 씨앗이 움트고 피어나는 인민의 《행복의 꽃》, 소중한 열매들중의 하나가 아니겠는가. 《철쭉》만이 아닌 《대동강》, 《삼일포》, 《금강》을 비롯한 많은 열매들이 이 땅에 주렁주렁 무르익고있는것이였다.

리 경 순